

15. 화려한 제주 방언의 마법사, 조

제주도에서 조만큼 제주 고유의 문화와 제주도민의 생활에 밀접한 것은 드물다. 조는 1938년까지 재배 면적이 30,000ha가 넘을 정도로 제주도민의 제일의 식량이었다. 식량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활 그 자체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 조와 함께 일어나 조와 함께 잠을 잤고, 태어나서 첫 음식이 콧죽이었고, 백일상에는 콧딱에 고물을 묻혀 잔치를 열었고, 죽으면 조밥으로 사잣밥을 올렸다. 아니 죽어서는 또 콧술로 제사상을 받았다. 그들의 생활이 궁핍해 굴곡의 언덕을 비릴 때마다 음식 또한 숱하게 생겨났다.

제주에서 조는 곧 생활이었으니 또한 언어학적으로 제주도에서 조만큼 식물 이름이 문화한 것도 흔치 않다. 그것도 제주 방언으로 척박한 제주의 농사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 식재에서 수확, 식단까지 각각의 과정별로 분화되면서 각각의 명칭이 십수 가지로 달리 불렸다. 하나의 작물에서 이 정도의 언어가 발생했다는 것은 생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차조와 메조를 뜻하는 흐린조와 모힌조, 노란색 조를 뜻하는 강돌하리, 고박시리, 명석시리가 있다. 황조, 모시조는 병든 조를 가리키는 말들이다. 그중에서도 미리 눈여겨볼 것은 바로 도난조이다.

그 외에 조의 모양에 따라 부르는 소리도 숱하다. 소용시리, 개발시리, 꺽검은조, 만둣조, 맛시리, 무기시리, 불그시리, 생이조, 청돌허리 등 수없이 많다.

인류문화학자 JG 피히테에 의하면 ‘언어는 자의적이 아닌 자연의 힘인 오성悟性적 생명으로부터 용솟음쳐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칙에 따라 발전하는 언어는 생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생명을 자극하는 힘을 갖는다’는 말이 실감 나는 곳이 제주도의 조에 관한 언어들이다.

어디 이뿐인가? 농가에서 모시던 곡령신 중에 오직 조만을 위한 곡령의 흔적인 ‘씻푸게’ 풍습이 남아 있는 것도 제주도다. 이 씻푸게는 칠성 본풀이에 나오는 칠성눌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칠성눌이 밑에는 암키와를 제쳐 놓고 그 위에 수키와를 엎어놓은 뒤에 그 기와장 사이에 조, 콩, 메밀, 산뒤(山稻) 등 오곡을 한 쯤씩 싸서 놓은 것이라면 씻푸게는 종자를 넣는 용기라는 제주도 방언으로 오로지 종자를 보관하는 용기를 뜻하는데, 이때 씻푸게에 봉안하는 종자가 오직 조였다. 그러니까 씻푸게는 조의 종자를 보관하는 종자 보관소 이자 공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는 곡령신이기도 했다. 제주도민에게는 조가 일종의 신격화될 정도로 중요한 작물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농사법도 다양하다.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맞게 농사지었음을 알 수 있다. 가슬치기는 겨울에 놀린 밭을 갈지 않고 파종 전 한 번만 갈고 조 씨를 뿌리는 농법이다. 1년에 한 번밖에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밭에 짓는 법이다. 5월 초중순에 씨를 뿌린다. 무기는 2·3월에 밭을 한번 갈고 파종 전에 다시 한번 밭을 갈고 조 씨를 뿌리는 농사법이다. 보통의 밭에 농사짓는 것으로 5월 중순에 파종한다. 마가지는 여름에 장마가 지나간 뒤에 조 씨를 뿌리는 농법으로 보리를 경작하는 좋은 밭에 경작한다. 보리를 수확한 후 한 번 갈아 거름으로 사용하고 파종 전에 다시 한번 갈아 조 씨를 뿌리는 농법이다. 6월 초순에 뿐린다.

제주도 농사법을 보면 신기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양은 토양대로 화산토라서 척박한 땅이 많았고, 제주도 날씨는 작물을 심기에는 적절치 않은 변화가 심한 섬의 기후다. 농사법도 이에 따라 늘 대비를 하게 되는데, 특히 태풍이 심해 태풍으로 망치고 나면 그 뒤에 심을 작물로 메밀을 마련해 두었고, 척박한 땅에는 조와 감자 종자를 마련해 두었다.

우리가 처음 조를 찾아 제주에 간 곳은 구좌, 대정 등이다. 특히 대정은 조에 관한 노동요와 여타 문화가 문화원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어서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찾아갔다.

그런데 그것은 역시 혓된 기대였다.

반나절을 문화원에 보내고 쉽게 생각하고 대정을 뒤지기 시작했다. 우선 문화원에서 보여준 전래 노동요를 들고 마을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쉽게 나올 리 없었다. 첫날은 기대를 둘러메고, 둘째 날은 희망을 품고 마을마다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사흘째 되던 날은 비행기 시간에 쫓겨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오전이 지나서야 겨우 찾은 주소. 그녀마저도 마을에서 이사하여 이미 제주 시내로 이사 가고 없었다. 다행히 옆집의 친구가 전화번호를 주어 찾을 수 있었다. 몸이 성치 않아 자식들이 제주 시내 변두리에 작은 집 하나 얹어 기거하게 했다.

그에게서 조 심을 때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할아방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목청이 좋아 조를 심을 때 내는 밭 밟는 소리를 구성지게 불렀다. 그마저도 잊어버려 띠엄띄엄 몇 번이고 되풀이 불러가며 잃은 기억을 되살리려 했지만, 끝내 전부는 들려주지 못하였다.

제주도 ‘밧 불리는 소리’다

어려려려려 오호야 어려려려 월월 하아야
이말들아 이말들아 챗망으로나 돌아나들라
어려려려 호호옹옹
어려려려 어려려려 월월월하량
요말덜은 보난 제주야 한라산에서 놀던 말이로구나.
이밧을 탄탄이 잘다려그네
조코고리랑 나건 덩드렁마께 만썩
월하량
상동같은 말들이로구나
너의 구실은 무엇이드냐
어려려려 월하량
하늘에선 보난 먹구름이
털털 하는구나 비가올 듯하는구나
월월 월하량 한적이나 다려보자 시간이 지나는구나
어려려 월월 월하량
저말을 막아라 월라말 청총말이로구나
자꾸만 둔갈라져 가는구나
월월월 월하량

제주 대정문화원 제공

그리고 2020년 다시 찾은 낍음리.

제주도에서 낭푼 밥상이라는 제주 토종으로 밥을 지어내는 식당 주인의 도움을 받아 찾은 곳이다. 단순히 예전에 조를 많이 심었다는 소식만 듣고 막연히 찾은 곳이다. 가보면 누구든지 만나겠지 하면서 그러나 제주도 지리를 잘 몰랐던 탓에 렌트카의 네비게이션에 낍음리라고만 치고 무조건 달렸다. 그런데 네비게이션이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낍읍리의 중산간지대 산속에 데려다 놓고 회전로타리 돌 듯 계속 제자리를 돌고 돌기만 했다.

어느 한 길을 찾아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은 아래쪽이겠지 하고 내려가는 길을 택하여 길을 잡아 한참을 내려갔는데, 한없이 밭만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밭은 묵어 있던지, 아니면 콩을 심고 있었다. 제주도 ‘준자리 콩’이었다.

그러길 한참을 내려가는데, 양배추 밭이 나오고 마침 밭에다 소독하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다. 수줍은 할망이었을까? 아니면 산중에 웬 낯선 사람을 만나 무서웠을까? 할망은 약통을 돌리고 먼 산만 바라보고 가늘게 단답만 했다. 그래서 납읍리 가는 길을 묻고 나오다가 문득 뒤돌아보고 물었다.

- 혹시 예전에 조를 심으셨나요?

- 우리 할망이 조를 심지 않은 사람있쑤가? 지금은 업쑤다.

그녀가 가리키는 곳이 모두 조밭이었다고 했다.

- 어디 첫여봄맹 도난조나 이쓰까?

- 예 도난조요?

도난조는 참으로 애꿎은 종자다. 가장 흔한 일반적인 조를 강돌하리라 부르는데, 무른강돌하리는 이삭에서 잘 튕겨 나오는 조를 가리킨다. 이런 무른강돌하리를 바심하다 보면 씨가 떨어져서 나가 언젠가는 발아해서 짹이 난다. 이렇게 난 조를 도난조라 부른다. 이해하건대, 땅에 도난당한 조거나 땅으로 도망간 조를 이리 불렀는데, 조 한 알이 아까운 제주 농민의 은유가 참으로 멋지다. 이 한 단어로 제주 농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제주에서 조가 점차 사라져 다른 작물로 대체 될 때도 밭담 밑에서 이 도난조가 제주 조를 지켰다. 몇 년을 계속해서 나오면서 명맥을 유지했는데, 마치 그 모습이 안타깝고 애처로워 제주 할망들이 씨종자를 받아 놨다가 기어이 심지 못하고 버린 지 오래됐다고 한다.

우리가 한참을 해매자 답답해 보였는지 할머니가 돌무덤 근처를 찾더니 강아지풀 만한 조를 들고 우리에게 건넸다.

사실 고백하자면 우리가 제주에서 토종 조라고 찾은 것은 이것이 유일했다. 수집 밭이 넓지 않았던지, 아니면 토종 조는 제주에 없던지 둘 중 하나였다.

도난조를 하나 꺾어 들고 할망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납읍리에 도착했다. 납읍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노인들과 인터뷰하기 위해서였다.

아뿔싸!

이들은 조를 잃은 거뿐 아니라 조 방언도 잃어버렸다. 가지고 간 방언을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게 했지만, 몇 가지를 빼놓고는 대부분 모르는 단어라 했다. 기억해내기 싫었을까. 생각나는 말조차도 그들 기억 속에는 가난한 추억일 뿐이었다. 그들은 이제 ‘조’라는 단어 하나로 새로운 문화의 언어로 삶을 채워가고 있었다. 살기 좋은 지금에 굳이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돼 버린 것이 조와 조에 관한 언어다.